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만다라



태양의 햇살을 그렸을까?
산양의 뿔을 멋지게 그린 것일까?

그냥 재미삼아 아무렇게나 그렸을까?
재미삼아 그리기에는 좀 철학적이다

멀리서 보면 꽃처럼 보이기도 하겠다

그럴 거다.
산양도 되고, 태양도 되고,
꽃이야 당연히 되겠지

그럼 만다라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이 그림은 대충 지나치듯 보면 알기 어렵다. 그림 안에 산양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꽃을 재미나게 그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한참 동안 자세히 보았더니, 그 그림 안에 산양이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산양의 뿔, 주둥이, 다리 등이 주변의 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산양의 뿔과 주변의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꽃처럼 보인다. 요즘의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무슨 뜻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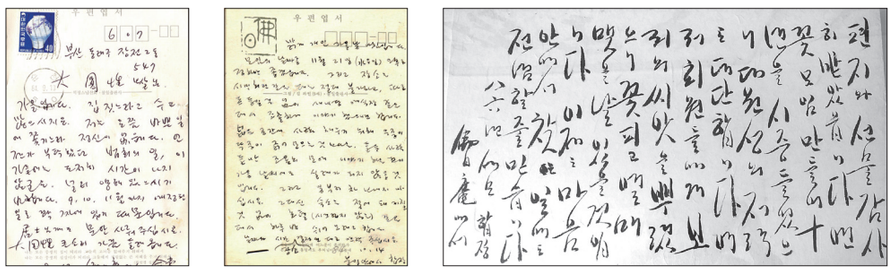
겨울 끝자락,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올 때, 엄마 닮은 귀여운 산양이 새로 태어났다. 새끼 산양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냥 신나게 뛰어다녔다. 덩치가 커지면서 뿔도 멋지게 달았다. 더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위해 싸우기도 했다. 우두머리가 되어 긴 밤을 경계심으로 보내고, 새벽녘 멀리서 동이 트면 그때서야 무릎을 세우고 온몸에 묻은 어둠을 후드득 털어 내며 해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뎠다. 늑대를 만나거나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서 혼비백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힘차게 달리고 멋지게 살다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늘로 땅으로 옮겨 갈 때가 되어 모든 만물과의 연결을 감사함으로 품고서 본래 하나였듯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산양이 일궈 낸 만다라 꽃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⑳ 법정 스님 3

별나라 가신 어린 왕자 스님



〈서신 1〉
가을입니다. 집 짓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요즘 바쁜 일에 쫓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젠가 부탁했던 법회의 일, 이 가을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군요.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예정된 일로 꽉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사님께도 문안 사뢰어 주십시오. 대원성 큰소리 가끔 들려옵니다.
1984년 9월 13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맑게 개인 가을날입니다. 모임의 날짜를 11월 21일(수요일) 오후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민회관 같은 데는 절대 불가하고 따로 돈 들일 것 없이 새마당 예식장 같은 데서 조촐하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 채우기 위해 어중이떠중이 긁어모으는 것 보다는 들을 사람들만 조용히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을 날씨에도 실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차 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숙소는 절에 폐 끼칠 것 없이 호텔 (시끄럽지 않는) 같은 데서 하루밤 쉬어오려고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결정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3〉
편지와 선물 감사히 받았습니다. 연꽃모임 만들어 십년을 시중들었으니 대원성의 저력도 대단합니다. 여러 회원들에게 보리의 씨앗을 뿌렸으니 꽃피고 열매 맺을 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안에서 찾는 일에도 전념할 줄 믿습니다.
1986년 세모 불일 합장

가을에 주신 서신과 세모에 주신 서신이다. 서신도 나이를 먹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다시 꺼내보는 서신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당시에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 있다. 서신의 짧은 글에서 스님의 삶이 진하게 느껴진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것들로 공부하셨던 스님이었다.

스님은 시간과 세월을 바람 한 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 보셨고, 그 자연이 주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가을입니다", "맑게 개인 가을날입니다"고 시작하는 스님의 서신을 이 가을에 다시 꺼내 보니 스님의 옛적 모습이 더욱 진하게 떠오른다.

스님이 원적에 드신 지도 10년이 지났다. 스님은 본인의 책 〈무소유〉에 남긴 '미리 쓰는 유서' 에서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 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도 하셨다.

스님은 이미 생전에 별나라에 사셨다. 늘 훨훨 날아다니셨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넘치지 않았으니 스님이 살던 세상은 별나라였고, 삶은 늘 훨훨 날아다닐 만큼 가벼웠다. 지금 어느 별엔가 계실 스님을 상상해 본다. 혹여 내생을 굳이 받으셨다면 이 땅 어딘가에 계실 스님의 모습도 떠올려본다. 어느 곳에 계시든 늘 곁에 계신 듯하다. 합장.



1979년 필자의 집을 찾았던 법정 스님.

